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심사평 및 심사결과

하늘은 우리(공군인)에게 어떤 존재인가? 공군의 4대 핵심가치는 그것과 어떤 관계인가? 이러한 철학적 물음과 관련하여 성찰을 한 글들이 많았다. 기존의 독후감들보다 학사 146기 독서감상문 대회에 제출된 다수의 글들의 수준이 높았다.

글의 양이 점수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주최 측이 제시한 기준의 양을 충족시키고 정곡을 찌르는 깨달음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으면 글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독서감상문은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생각의 열매를 얻었는가를 글로 보여주는 데 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된 글 외에도 상을 주고 싶은 글들이 많았다. 짧은 지면에서 모두 언급하기는 어렵다.

「0번째 공군핵심가치 책임감과 공군인 김신」(천승환)은 공군핵심가치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였다. 4대핵심가치가 그 기저에 놓인 군인정신과 책임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논리적이면서도 개인의 경험적 바탕에서 잘 정리하였다. 핵심가치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최우수로 선정하였다.

우수로 선정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동현)은 ‘하늘’의 의미를 천착한 글이다. 인류 역사상 하늘은 미지의 세계이고 종교적 대상이었다. 인간의 영원한 ‘이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념 속의 하늘을 지상과 인간과 삶의 ‘하늘’로 환원시킨 깨달음이 담겨 있다. 공군인에게 하늘은 이상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다. “하늘이 삶 속으로 스며들 때 비로소 하늘은 그 이상의 공간이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독서 경험을 통해 얻었다. 위 두 글은 서로 각기 다른 후보생들의 글이지만 종합을 하면 ‘이상’과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한 ‘실천’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 다른 우수로 선정된 글 「“공군인의 능동의 사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고」(김진섭)는 대한민국 공군만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전통과 내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글에서 “위로부터의 의지, 아래로부터의 명예, 그리고 주위로부터의 비극이라는 끝없는 무게의 짐을 그의 비행기로 실어나가야만 했던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다짐과 실천은 우리 항공독립운동사, 그리고 공군사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하여, 김신 장군이 공군에 남긴 족적과 그의 삶을 공군사와 더불어 이해한 폭이 넓어 보였다.

장려로 선정된 「김신 선배님과의 대화」(임태구)는 젊은 나이에 유학을 하면서 몸소 깨달은 깊은 애국심이 담겨 있고, 「조국의 하늘을 펼치다」(백민주)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군사학과를 진학하는 등 남다른 안보관과 국가관 및 학고한 공군관(觀)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나도 이제 조국의 하늘을 난다」(홍시표)는 김신 장군의 자서전을 통하여 투철한 군인정신과 주인의식을 깨닫고 이를 계승할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입상이 되지 않은 글들도 칭찬을 하고 싶다. 또한 146기 모든 후보생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간단없는 자기계발과 도전의 삶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전통을 이어가기 바란다.

이윤식

독서감상문 대회 심사위원 이윤식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입상자 명단

* 선발인원 : 최우수(1), 우수(2), 장려(3)

이름	소속/소대번호	수상명	독후감 제목	점수
천승환	장교교육대대 2330	최우수	0번째 공군핵심가치 책임감과 공군인 김신	93.7
이동현	1223	우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92.5
김진섭	2216	우수	“공군인의 능동의 사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를 읽고	91.7
임태구	1229	장려	김신 선배님과의 대화	91.2
백민주	1445	장려	조국의 하늘을 펼치다	90.9
홍시표	1421	장려	나도 이제 조국의 하늘을 난다	90.9